

[그린리모델링 선도기업] 친환경계획그룹 청연

6년 연속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현황평가·컨설팅 수행

여인규 기자 igyeo@kharn.kr

등록 2021-05-09



친환경계획그룹 청연(대표 김학건)은 그린리모델링정책 및 시범사업 개시와 함께 2016~2021년 6년 연속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현황평가, 에너지 시뮬레이션·설계 컨설팅 및 연구를 수행했다.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기술·전문가를 확보했다.

그린리모델링 관련 연구·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10건 이상 수행해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개발과 함께 관련연구·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컨퍼런스 참여, 몽골 정부대표단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.

특히 청연사옥을 2018년 리모델링해 근린생활건축물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인증 및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을 취득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담은 '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' 서적을 2019년 출간했다.

청연의 관계자는 "그린리모델링관련 다양한 활동이 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"라며 "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공공·민간을 아우르는 대표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하고자 한다"고 밝혔다.

청연은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사업에서 수도권을 담당하는 중앙대 컨소시엄에 속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계획 및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 기존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기술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완·발전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.

청연의 관계자는 "그린리모델링은 정부 그린뉴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강력히 시행 중이나 향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생적 사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"라며 "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전문가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사업신청 간소화, 사업비 지원 확대, 세금감면 등 정책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산업토대를 마련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저작권자 2015.10.01 © Kharn